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 명도따라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빛내여가는 장엄한 진군길에서 당창건 일흔년을 가장 경사스러운 혁명적명절로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건설자, 명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장 뜨거운 감사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10월 10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김기남동지,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김양건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김평해동지를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존엄높은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송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모셔져있는 출애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양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쓰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불패성의 상징이시고 한없이 귀중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대한 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철석같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정보단

